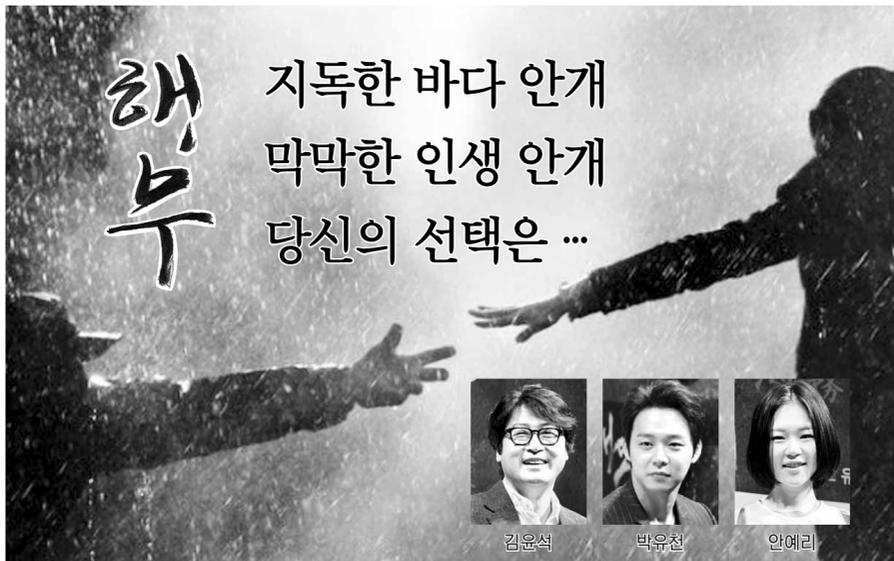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⑤:40 그때 그 사람(재) 50 부부극장 공작지(재)	00 KBS 뉴스광장	4:00 여기는 브라질 16강전 (벨기에vs미국)	⑤:00 2014 브라질월드컵 <벨기에·미국> 16강	⑤:00 브라질월드컵 16강전 <벨기에·미국>
7	50 인간극장	00 2014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50 광주MBC 뉴스투데이	00 KBC 모닝아이드
8 00 새 시도시사에게 듣는다 15 쿠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0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한국의 맛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채널	50 2014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래나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45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재)	00 2014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브라질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재)	00 SBS12뉴스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1 30 뉴스 특급	00 생생최전선(재) 40 리얼처럼 세상을 품다(재)			
2 40 직언직설	20 TV, 책을 보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다큐멘터리 3일(재)	20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
3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유로리그 토크(재) 55 TV 유지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응개 쇼나타 40 헬로키즈 아하! 과학탐험대 2	10 세상발견 유레카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채널(재)	25 코파 반장의 통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독?뚝! 키즈클럽	00 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강 55 시청자처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무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처럼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명처럼 널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나희들은 댕꾸였다>
11 00 맥방소 맛의 전설	30 KBS 뉴스라인	10 이미지 노래 인생 55년 기념 공연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도시의 법칙
12 20 갈데까지 가보자	3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35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30 모큐드라마 <싸인>	①:10 소중한 나눔의 이야기	①:00 한국인의 밥상(재)		①:05 SBS 컬처클럽



영화 '해무' 제작보고회 ... 한 배 탄 인간의 다양한 심리 그려

한국영화 '해무'는 한 배에 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중심에는 선장 역할을 맡은 배우 김윤석이 있다. 김윤석은 1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해무' 제작보고회에서 "출연 배우들이 하나같이 어찌하면 이렇게 다 다를까 싶었다. 모두가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캐스팅된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윤석과 함께 '전진호'에 승선한 배우들은 다채로운 개성을 갖고 있다. 사연 많은 기관장 완호 역의 문성근과 선장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갑판장 호영 역의 김상호, 돈을 최고로 치는 롤러수 경구 역의 유승목, 열등감이 가득하면서 강한 선원 장욱 역의 이희준, 그리고 순박한 막내선원 동식으로 분한 박유천이 그 주인공들이다. '해무'는 13년 전 '코리아인 드림'을 품고 묵숨에 건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이 수심명이 밀항선에서 직실사한 뒤 수장된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다.

김윤석은 "영화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는 망망대해에서 농무와 격랑에 갇힌 배라는 폐쇄된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들의 심리를 정밀하게 파고든다. 특히 김윤석이 선보일 선장의 다층적인 내면 연기가 공감을 얻었다. 유승목은 "김윤석 선배가 조타실에서 나오면서 내복을 입고 나와 우리를 흔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기 잡으러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윤석과 함께 주먹 받는 또다른 존재는 이 작품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그룹 JYJ의 박유천이다. 박유천은 "(시나리오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 꼭 이 영화에 들어가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첫 영화인데 지금도 많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김윤석은 "박유천은 온실에서 크게 자라난 도련님이라. 기본적으로 연기를 대하는 자세나 공동작업에 대한 자세가 잘 돼 있다. 오래오래 영화 연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윤석은 "박유천은 온실에서 크게 자라난 도련님이라. 기본적으로 연기를 대하는 자세나 공동작업에 대한 자세가 잘 돼 있다. 오래오래 영화 연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해무'는 심 감독과 영화 '살인의 추억'(2003)에서 각본-연출로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한 봉 감독은 "'해무'는 두배, 세배로 더 공을 들인 영화이고 심성보 감독은 영화 '살인의 추억'이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했던 동반자"라고 밝혔다. 실감나는 뱃사냥 연기를 펼친 김상호도 이날 "'해무'는 꽤 괜찮은 영화다. 대한민국 영화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분명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유아를 부탁해!>	14:45 곤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리얼토크 여왕의 외출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 <대재앙>(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19:50 다문화 고부열전(재)
07:00 곤(재)	11:20 세계대마기행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20:40 다크 오늘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속디 라오! 라오스 3부>(재)	15:50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대마기행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워킹맘 유치원(재)	<중국한기행5 창장 3부>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EBS 초대석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30 한국기행 <서울역사기행 3부>
08:00 당동당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핵갈피 요정 또보	21:50 EBS 다크 프라임
08:20 짝과 광(재)	13:10 사이틴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6부 치매와의 단신>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20 골골! 패파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극한직업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30 고양이 파피	17:15 꼬마버스 타요	<구를 놓는 사람들>
09:05 핵갈피 요정 또보(재)	13:45 반짝반짝 별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20 미술탐험대	14:00 머털도사	17:45 두디다공	24:05 지식채널e(재)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	24:10 수요극작 <웃음>(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과탐·생명과학 I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사회 4-1)
01:40 "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I (6-1)	16:20 " (사회 5-1)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8: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 6-1)
02:30 " <수학 II>	14:00 " <국어 A형>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I>	14:50 " <영어 A형>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전과목 6-1>
04:10 " <과학>	15:40 " <영어 B형>	09:10 TV 중학 <국어 I②>	18:00 TV 중학 <영어3-1>
05:00 " <한국사(하)>(재)	16:30 " <한국지리 I>	09:50 " <수학 I(하)>	18:40 " <수학3-1>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사회문화>	10:30 " <도덕 I>	19:20 등업신공 <사회3-1>
06:40 암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경제>	11:10 " <국어 I③>	20:00 국학개념 끝내기 <국어>
07:30 2014 포스 <문법 II>	19:00 " <윤리와 사상>	11:50 " <수학2(하)>	20:40 " <영어>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I (재)	12:30 등업신공 <사회1>	21:20 " <과학>
09:10 " <수학 II>(재)	20:00 EBS-NX <국어 B형>(재)	13:10 " <역사 I>	22:00 " <수학>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 <수학 B형>(재)	13:50 " <역사2>	22:40 성교육 애니메이션 <사회2>(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4:30 " <사회3-1>	24: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23:00 " <영어독해연습①-종합편>	15:20 만점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음 6월 6일 甲戌)

子 36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48년생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허탕을 칠 수다. 60년생 계속 유지하기 위한 쓰라림이 보인다. 72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84년생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42, 15	午 42년생 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털어선 먼저 나오지 않는 이 없느니라. 66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원할해질 수 없다. 78년생 평안한 마음으로 형세를 즐기라. 행운의 숫자 : 39, 28
丑 37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49년생 바쁘게 쫓다녀야 할 일이 벌어지겠다. 61년생 본인과 직접 얘기해야 쉽다. 73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겸손성도 절실하게 요창된다. 85년생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74, 52	未 43년생 부드러운 어감의 표시가 훨씬 더 실득력이 있다. 55년생 집착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67년생 어렵게 이룬 성과일 수록 값어치가 있으리라. 79년생 실정을 자백하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61
寅 38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50년생 형편과 처지에 맞아야만 하느니라. 62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74년생 불편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63, 94	申 44년생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하다. 5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68년생 균형을 잃는다면 부작용을 부르는 법이다. 80년생 판단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겠다. 행운의 숫자 : 22, 67
卯 39년생 알면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51년생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63년생 여태껏 함께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이다. 75년생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행운의 숫자 : 88, 08	酉 45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나 놀랄 필요는 없다. 57년생 흑백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님을 알자. 69년생 오해방탕해오던 것이 소기의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 한다. 81년생 어지간해서는 어투가 어렵다. 행운의 숫자 : 89, 23
辰 40년생 갑자기 앞질러 나가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52년생 징후가 현실화 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64년생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나. 76년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유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7, 95	戌 46년생 모순을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다. 58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다. 70년생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82년생 오랜 세월 동안 성가셔 왔던 문제가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50, 79
巳 41년생 의욕이 충만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있다. 53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5년생 조중히 뛰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77년생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 이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01	亥 47년생 군사에 있어서는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59년생 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클 것이로다. 71년생 주관적 추측이 아닌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83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환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73,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지오디 '하늘색 약속' 9개 차트 1위

'미운오리새끼' 이어 연타석 홈런 ... "정말 꿈만 같다"

그들 지오디(god)가 1일 발표한 8집 수록곡 '하늘색 약속'이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하는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5월 발표한 8집 선공개곡 '미운오리새끼'로 음원차트 정상을 휩쓴 데 이어 연타석 홈런이다. 이날 낮 12시 공개된 '하늘색 약속'은 멜론, 엠넷닷컴,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지니, 벅스, 소리바다, 싸이월드뮤직, 몽키3뮤직 등 9개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이단옆차기가 작곡한 이 곡은 따뜻한 멜로디의 '지오디 표' 미디움 템포 곡으로 과거 히트곡 '하늘색 풍선'을 연상시키는 멜로디와 구성, 또 다른 대표곡 '꽃발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가사가 더해져 향수를 자극한다. 특히 '헤어질 때 우리 다시 만나자고. 맹세한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늘색 풍선 가득했던, 유 앤 미(you & me)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는 가사를 담아 '하늘색 풍선'을 잇는 팬송으로 완성했다.

멤버들은 음원차트를 휩쓴 데 대해 "정말 꿈만 같다"며 "팬들의 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찌까지 초조했는데 다시 1위를 하니 감사하고 기쁘다"고 기쁨사 싸이더스HQ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지오디는 과거 다양한 세대에 사랑받으며 '국민 그룹'이란 수식어로 불렸다"며 "국적과 시대를 뛰어넘은 명곡으로 전설이 된 그룹 비틀스처럼 앞으로도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을 선보여 '한국의 비틀스'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큰 꿈이 있다"고 말했다. '하늘색 약속'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녹음하고 안무 연습을 하는 장면, 하늘색 풍선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 등을 담아 메이킹 필름 형식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선보일 타이틀 곡 중 한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출연했다. 이들은 오는 8일 8집 전곡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9일 앨범을 오프라인에 출시한다.

양현석 "박봄, 금지약품인지 모르고 처방받은 것"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논란 해명

인기 걸그룹 투에이넌(2NE1) 멤버 박봄<사진>이 4년 전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속사정을 자세히 털어냈다. 양 대표는 1일 공식 블로그에 "미국 병원의 처방약을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박봄은 미국에서 몇년간 학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박봄은 데뷔 전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던 시절이 있었다. 경기 도중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목격하면서 충격과 슬픔으로 힘을 사활을 보았다"며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미국의 유명 대학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봄은 4년 전까지는 병원에서 정식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으나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했다"며 "이를

받은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이어서 세관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미국 병원에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다. 사실적으로 딸과 손녀에게 마약을 구해주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디 있었는 가"라고 반문했다. 인천지검은 박봄이 2010년 4월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페타민 80여정을 반입하려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으나 치료 목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로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